

[21장 소화계 정오표]

*656쪽 왼쪽 칼럼 위에서 **12~16번째 줄 삭제**

~~정단과 기저측막에 존재하는 수송단백질의 배열은 상피를 따라 이동하는 용질과 물의 위장관 상피세포는 신장의 상피세포처럼 고유의 특성이 있는 정단과 기저측막이 있으며 막에는 능동 수송, 촉진확산, 열린 채널을 통한 이온 수송을 담당하는 단백질들이 존재한다.~~

*656쪽 왼쪽 칼럼 위에서 16번째 줄:

교정전: 정단과 기저측막에 존재하는 채널과 수송체의 배열은 상피를 따라 이동하는 용질의 전체적인 이동 방향을 결정한다.

교정후: 정단과 기저측막에 존재하는 수송 단백질의 배열이 상피를 따라 이동하는 용질과 물의 방향을 결정한다.

*658쪽 왼쪽 칼럼 위에서 13번째 줄:

심박조유기 → 심박조**울**기

*658쪽 오른쪽 칼럼 위에서 7번째 줄:

소자 → 소**장**

*659쪽 왼쪽 칼럼 위에서 18번째 줄:

소하관 → 소**화관**

*659쪽 왼쪽 칼럼 아래에서 4번째 줄:

혈뇌장벽 → **혈액**뇌장벽(blood-brain barrier)

*661쪽 왼쪽 칼럼 위에서 1번째 줄:

교정전: 게다가 주변분비물질인 히스타민과 같은 비펩티드성 조절물질에 관해서도 알고 있다. 현재는 호르몬으로서 관련성이 불확실하므로 이장에서는 주요 조절물질을 살펴보자.

교정후: 게다가 히스타민과 같은 비펩티드성 조절물질이 주변분비 신호물질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주변분비물질로서 작용하는 지에 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이장에서는 주요 조절물질에 관해서만 논의하고자 한다.

***661쪽 왼쪽 칼럼 위장관 호르몬 소항목에서 빠진 문단이 있어서 마지막 문단으로 첨부**

위장관 호르몬에 관한 연구가 진행이 느린 이유는? 주된 이유는 위장관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세포는 점막상피세포들 사이에 산재되어 분포하기 때문이다. 한번에 이들 호르몬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체 상피를 불완전하게 절제하는 방법인데 이러한 과정에서는 인접한 세포에서 만드는 소화효소와 주변분비물질이 방출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추출물에 의해 나타난 생리적 효과가 하나의 호르몬 또는 하나 이상의 호르몬 또는 히스타민과 같은 주변분비 신호물질의 작용때문인지를 규정짓기는 어렵다.

*661쪽 오른쪽 칼럼 위에서 1번째 줄:

효과가 → **효과를**

*668쪽 왼쪽 칼럼 아래에서 3번째 줄:

림프계의 암죽(lacteal) → 림프계의 암죽**관**(lacteal)

*671쪽 왼쪽 칼럼 위에서 14번째 줄:

교정전: 따라서 벽세포가 위로 수소 이온을 분비할 때 창자로 재흡수된 수소 이온은 중탄산염과 균형을 맞춘다.

교정후: 따라서 창자 혈관으로 재흡수된 수소 이온은 벽세포가 위로 수소 이온을 분비할 때 혈액으로 들어간 중탄산염과 균형잡는 것을 도와준다.

*671쪽 왼쪽 칼럼 위에서 21번째 줄:

기증의 결함 → 기능의 결함

*671쪽 오른쪽 칼럼 위에서 7번째 줄:

전체적으로 이자에서 → 최종적으로

*673쪽 왼쪽 칼럼 아래에서 13번째 줄:

교정전: 자유 콜레스테롤은 흡수되기 전에 소화될 필요가 없다.

교정후: 자유 콜레스테롤은 소화되지 않으며 온전한 상태로 흡수된다.

*673쪽 왼쪽 칼럼 아래에서 9번째 줄:

수용층 → 수성층(aqueous layer)

*673쪽 오른쪽 칼럼 아래에서 3번째 줄:

교정전: 소장에서 탄수화물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단당류의 형태를 취하는데, 이는 모든 복잡한 탄수화물과 이당류가 흡수되기 전에 단당류로 분해되어야 한다.

교정후: 소장에서는 단당류의 형태로만 탄수화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인체에서 탄수화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이즈가 큰 모든 탄수화물은 소화되어야만 한다.

*675쪽 왼쪽 칼럼 위에서 2번째 줄:

교정전: 그 결과로 식물의 셀룰로오스는 식이성 섬유(fiber), 즉 조사료(roughage)가 된다.

교정후: 그 결과 식물의 셀룰로오스는 식이성 섬유(fiber) 또는 조사료(roughage)가 되어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배설된다.

*677쪽 왼쪽 칼럼 위에서 18번째 줄:

교정전: 따라서 부모가 알레르기를 유도하는 펩티드의 섭취를 낮추면, 창자는 성숙할 기회를 갖게 되며, 항체 생산의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음식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가장 흔한 항원이 밀의 주성분인 글루텐(gluten)이다.

교정후: 따라서 부모가 유아에게 알레르기를 유도하는 펩티드의 식이를 낮추면, 창자는 성숙할 기회를 갖게 되며, 항체 생산의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음식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가장 흔한 항원이 밀의 성분인 글루텐(gluten)이다.

*677쪽 오른쪽 칼럼 11, 13, 17번째 줄

내인자 → 내인인자로 통일

*677쪽 오른쪽 칼럼 아래에서 10번째 줄:

교정전: 내인자가 부족하다고 바로 치료할 필요는 없지만

교정후: 내인인자의 결핍을 직접적으로 치료할 수는 없지만

*677쪽 오른쪽 칼럼 아래에서 8번째 줄:

교정전: 철과 칼슘은 창자에서의 흡수가 몸 안에 존재하는 농도와 직결되는 무기질이다.

교정후: 철과 칼슘은 창자에서의 흡수가 조절되는 소수의 물질 중 두 가지에 해당한다.

*678쪽 오른쪽 칼럼 위에서 3번째 줄:

교정전: 헥시딘과 결합한 수송체는

교정후: 헥시딘과 결합한 페로포틴 수송체는

*678쪽 오른쪽 칼럼 아래에서 15번째 줄:

나트륨 이온이 주요 수송체인 $\text{Na}^+\text{-K}^+$ → 나트륨 이온에 대한 주요 수송체인 $\text{Na}^+\text{-K}^+$

*684쪽 47. 내인성 인자 → 내인인자

*685쪽 9번 보기 6. 소마토오스타틴 → 소마토스타틴, 보기 9. 내인성 인자 → 내인인자

*부록 A-27 개념점검문제 1번 점액 측 → 점막 측

*부록 A-27 개념점검문제 12번 용화시켜 → 유화시켜

*부록 A-27 문제 1단계 6번 분화하여 → 분열하여

*부록 A-27 문제 2단계 18번 신경-뇌장벽 → 혈액뇌장벽

*부록 A-28 문제 4단계 25번 (b)

교정전: MIT는 점막에서 조직으로, 이어서 장막쪽으로 이동한다. 이것은 정단에서 기저측으로의 수송 또는 흡수한다.

교정후: MIT는 정단에서 기저측으로 이동하는데 이는 흡수를 의미한다.

*부록 A-28 문제 4단계 25번 (c)

점막쪽의 막을 따라 → 정단막을 따라

*부록 A-28 문제 4단계 25번 (d)

장막 쪽의 막을 따라 → 기저측막을 따라;

조직은 장막쪽보다 → 조직은 장의 낭액보다